

건협 중앙검사의원, 병리전문의 이윤성 교수 초빙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 한국건강관리 협회 중앙검사의원은 병리검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6일 병리전문의 이윤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병리검사에 초빙했다.

앞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윤성 전문의에 의한 병리검사에 따라 혈액검사 정확도 및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윤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로 근무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시협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조현의 원장은 “이윤성 교수 초빙으로 병리검사의 품질 향상과 전문 수탁검사기관으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건협 중앙검사의원은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으로 13명의 전문의와 70명의 직원이 하루 평균 약 2만4000여 건의 진단 검사와 3000여 건의 병리검사를 해오며 국민 건강관리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완주경찰, 전은 완주산단지점 직원에 감사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완주산단지점 정영웅 대리는 전북은행 고객의 보이스피싱 사기금 300만 원을 예방하여 완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13일 수여받았다.

정영웅 대리는 지난달 14일 창구를 방문한 고객이 800만 원을 송금 요청하는 과정에 어색한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말투, 떨리는 손 등을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감지했다.

이에 정 대리는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송금수류를 물자 ‘외국에 있는 여자친구의 귀국차금’이라는 고객 답변에 보이스 피싱임을 알아챘다.

정 대리의 빠른 판단에 의한 신고로 고객의 1차 피해를 예방했지만, 다음날 그 고객이 재차 다른 직원에게 똑같이 송금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신고한 후 정 대리는 장시간 고객과의 대화속에 고객을 설득했으며 3300만 원의 큰 금액 피해를 예방하기에 이르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까지도 예방교육을 확대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고객의 차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전북, 해빙기 공사현장 안전점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영농철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각 공사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죽대 및 토사 통과, 지반침하, 동절기 티설 콘크리트 상태, 낙석이나 통과위험’이 있는 암석 및 토사 제거 등 안전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여기서 결함이 발견되면 ‘응급, 항구복구 조치’ 등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문 본부장은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첨첨하게 작업장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재해예방과 함께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덕진경찰 모래내지구대,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전주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로부터의 도민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덕진경찰서 소속 모래내지구대는 이에따라 13일부터 관내 금융기관 21개소에 대해 직접방문 방식으로 고액인출시 112신고를 적극 당부하며 도민금융피해보호에 앞장섰다.

또 신고시 신속출동해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각오까지 비추며 피해예방으로부터 적극적인 홍보에 임했다.

특히 누군가와 통화하며 예금을 인출하거나 당황스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고객을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 당부까지 빼놓지 않았다.

모래내지구대 관계자는 이자리서 “최근 검찰, 금융당국을 시정하는 사기 전화와 고액전환 대출, 미끼문자 등을 활용하는 범행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누구나 찾고 싶은 내실있는 축제로”

제19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성료

제19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9년 이후 4년만에 열린 첫 현장축제인 만큼 방문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다양한 지역과 여러 단체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부스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행사장 일대의 숲을 살펴보는 숲 탐험대와 고로쇠 수액 체취 행사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축제에 참가한 김수찬 씨 가족은 “마침 봄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에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였던 것 같다”며 “프로그램과 먹을거리가 많았고 참여여행도 생각보다 꽤넓어서 더욱 흥미로웠으며 내년에도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로쇠수액은 축제 당일 현장판매와 리라이브러스를 진행하여 꽤빛았던 반응을 얻었으며 축제 이후에도 3월 중순까지 진안군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군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수박축제, 진안홍삼축제 등을 한해 진안군에서 열리는 많은 축제에도 많은 참석 바라며 누구나 찾고 싶은 내실있는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설천파출소, 보이스피싱·빈집털이 등 예방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 설천파출소(소장 류용우)는 13일 설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회의에 참석했다.

설천파출소는 보이스피싱, 빈집털이 절도 등 각종 범죄로부터의 예방과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적상 초리 꿩꽁놀이축제 추진위, 이웃돕기 나서

무주군 적상면 초리 꿩꽁놀이축제 추진위원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면서 성금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13일 초리 꿩꽁놀이축제 추진위원회 이병수 초리마을 이장 등 일행들은 무주군을 찾아 축제 수익금의 일부인 115만원 원을 전달했다.

이병수 이장은 “초리 꿩꽁놀이축제가 전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뛰어난점 때문”이라며 “수익금 중 일부를 성금으로 기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마을주민들의 끈끈한 공동체 힘이 꿩꽁놀이축제의 원천”이라며 “보내주신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초리 꿩꽁놀이축제는 초리사마을회가 주축이 돼 적상면 초리마을 일원에서 열음썰매, 맨손송어잡기, 전통놀이 체험(올해 방문객 1만1천여명)등으로 체험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KT스카이라이프 방송복지물품 기부 받아

남원시는 올해 KT스카이라이프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되어, 방송복지물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13일 시청 2층 시정실에서 KT스카이라이프(김철수 대표이사)와 방송복지물품 기부식을 가졌다.

남원시의 이번 선정 대상은 총 20곳으로, 의료급여 및 차상위 해당자의 치매환자 취약가구 17곳과 시설 3곳으로 총 9천 만원 상당의 방송복지물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기부품은 55인치 UHD TV와 스카이라이프 방송서비스 생활 묵시점권으로 이번 지원에 따라 저소득 치매어르신과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보다 좋은 환경의 방송시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만섭 남원시 치매안심과장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번 기부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취약한 치매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무주관광 체험 워크숍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는 10일 무주군의 대표명소인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여성단체 임원 등 3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관광체험 워크숍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지역관광체험 워크숍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의 성지이자 국민 관광지인 태권도원과 공립박물관 인정시설인 반디랜드의 곤충박물관, 향로선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견학하며 내 고장 관광지원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 38명은 관내 워크숍을 통해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반딧불이 체험과 학습공간으로 인기있는 반디랜드와 체험형 문화공연인 목재문화체험장을 둘러보며 내 고장 관광지원 일리기에 나섰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석진숙 회장은 “풍부한 관광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군이 1000만 관광시대를 열 수 있도록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우수한 관광지원을 널리 알리겠다”며 “관광발전지역 1등급으로 선정된 만큼



가고 싶은 무주, 다시 찾는 무주로 기억되어 지역관광 매력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역할에 앞장사야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역량강화교육, 취약계층의 복지기부선과 자원봉사활동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남남성의용소방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전주완남소방서 소속 전주완남·임실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일 화재취약가구인 반지하 주거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한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실시했다.

반지하 주거시설은 건물 특성상 화재 시 대피 확보가 어려우며 노인 등 피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전주완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은 2인 1조로 편성해 반지하 주거시설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노후된 소화기 교체’ 등 온정을 내밀었다.

또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단독경보형 감지기 접점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마련해 실시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전개

전북농협, 농협정읍시지부, 삼골농협은 18일 개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한 ESC(환경 실천) 위해 정읍시 정우면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을 마련해 폐기물 수거에 나섰다.

이날 농가주부모임 정읍시연합회(회장 김정순) 회원들과 농협 임직원 등 20여 명이 함께 동참해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환경쓰레기 기름졌다.

김영일 본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농촌의 미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으로 깨끗한 농촌미를 가꾸기에 힘쓰고 탄소중립 실천과 ESC(환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농작물 병충해 등 깨끗한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청렴 문화 거리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13일 실시했다.

캠페인은 시민들의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청렴 문화를 지역에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및 청렴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이날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비단금을 비롯한 직원들을 전주시 헌금을 일대에서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음주운전 균절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서로 등등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항을 되새기는 상호존중의 날을 실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경주 지부장은 “전북지부는 매달 청렴·반부패·감질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민들과 함께 더욱 의미가 뜻깊다.”고 말했다.

오늘 캠페인이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청렴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